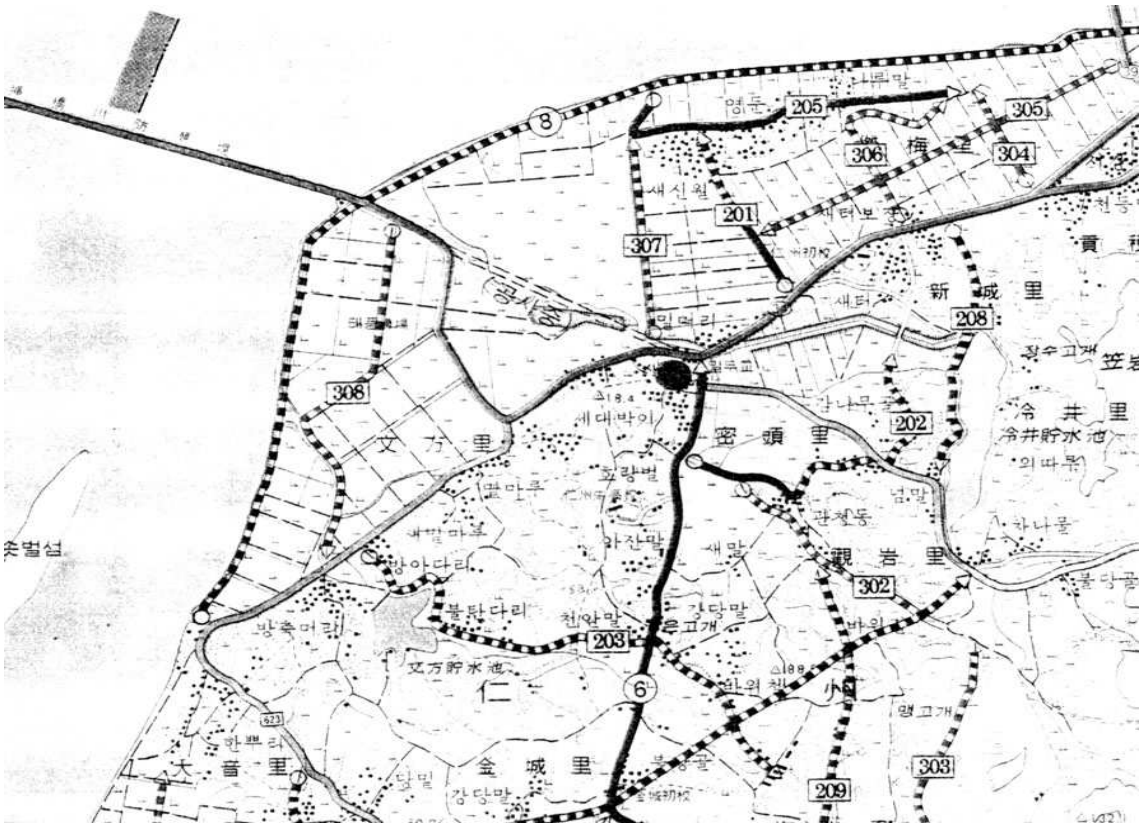
문방리•文方里

문방리는 인주면의 한 마을로 행정상 세 마을로 나뉜다. 1구를 문지 또는 문간 ,2구를 방축리 3구를 은고개라고 한다. 문방리는 아산구 이서면의 지역으로 1914년행정구역 폐합에 따라문지리(현 문방1구), 방축리(문방2구)를 병합하여 문지와 방축의 이름을 따서 문방리라 하여 인주면에 편입되었다.

문방리의 총 가구 수는 289 가구이며 인구는 총 891명이다.

<문방리 위치도>



⊠ 문지리(문간)마을, 방축리(방축머리)마을, 은고개마을

문지리마을은 당나라 시절 인주방면으로 배를 타고 닻을 내리던 곳이라 하여 문지리라 했다. 또한 이 마을을 밀마루라고도 한다.

방축리 마을은 지금은 없어져 논으로 사용 되고 있으나 전에는 지금의 문방 저수지 아래쪽으로 큰 방죽이 있었다. 현 문방2리(고려시대의 방축리)는 그 방죽의 머리쪽에 있다하여 방죽머리 방축머리라 하였다.

은고개 마을은 원래 천안군 동의면 응현리가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다른지역 보다 지대가 높아 통행에 불편이 많았다 하며 마을지명인 응현리의 이름을 따라 응고개라 불리워 오다가 지금은 변하여 은고개라고 한다.

<조사당시 문방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문방리에서 밀마루 마을은 경도 126-55-00, 위도36-51-40에 솟벌섬은 경도 126-50-40, 위도 36-51-20에 은고개는 경도 126-53-10, 위도36-51-00에 위치해 있다. 위 면소재지에서 서쪽으로 1㎞정도 39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623번 도로로 내려오면 200m도 못미쳐 문지리마을이 있고, 밀마루에서 아래쪽으로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1.5㎞되는 지점에 도로 아래쪽 으로 많은 집들이 있는 방축리가 나온다. 은고개 마을은 위도 36-51-10, 경도126-52-3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소재지에서 6번 도로를 타고 아래쪽으로 2㎞정도 되는 곳에 마을이 있고 그마을에서 203번 도로가 6번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문방리는 남으로는 문방리 저수지를 동으로는 밀두리를 나머지는 삽교천과 만나고 있다. 특히 인주면에서 유일하게도 섬(솟벌섬)이 있는 지역이다.

2) 현황

인구분포 현황에서는 문지 마을이 371명으로 인구가 제일 많으며 생업에서는 방축리 마을이 95% 로 농업에 종사자가 제일 많으며 농경지 현황은 문지 마을이 139ha 방축리 마을이 104ha 은 고개 마을이 67ha 이다.

- 인구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문지(문간)	371명	196명	175명
방축리	271명	147명	124명
은 고개	249명	131명	118명

- 생업

구분	계	농업	기타

마을명			
문지(문간)	100%	86%	14%
방축리	100%	95%	5%
은고개	100%	67%	33%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문지(문간)	139ha	115ha	24ha
방축리	104ha	73ha	31ha
은고개	67ha	42ha	25ha

- 농기계 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문지(문간)	40	13	5	28	12	25
방축리	65	6	3	30	2	20
은고개	60	3	5	40	5	30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문지(문간)	1개소	1	1조
방축리	1개소	1	1조
은고개	1개소	1	1조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문지(문간)	18	13	5	15	15	20	60	5	4
방축리	16	30	19	40	50	54	32	21	9
은고개	18	38	10	25	35	51	50	20	2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오씨	장씨	기타
문지(문간)	21%	12%	25%	24%	28%
방축리	29%	8%		7%	56%
은고개	15%	9%	1%	2%	73%

학생 분포에서는 문지 마을이 38명이고 방축리 마을이 29명이며 은 고개 마을의 학생 수는 20명이다.

- 학생 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문지(문간)	15	10	8	5
방축리	5	10	8	6
은고개	9	4	3	4

- 최고령자

91세의 김재왕 할머니 이시고 문방2리 방축리는 93세의 김순학 할아버지시이고 문방3리는 86세의 김정득 할아버지이다.

- 호당 평균 소득

문지마을은 년에 약 800만원 정도이다.

방축리마을은 년/1,000만원, 은고개마을은 년/900만원이다.

3) 자연경관

문간마을은 마을의 가옥들은 도로 바로 오른쪽에 접해 있고 가옥의 반대편 도로건너에는 논들이 펼쳐져 있는데 논 사이로 작은 내가 흐른다. 마을 쪽에도 논이 있는데 산이 위치해 있어서 골짜기 쪽 낮은 지대에만 분포하고 있다. 문방2리는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길들이 여러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으며 마을이 마치 언덕들을 이어 놓은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작은 경사들이 많이 나 있다. 가옥은 마치 미로의 한 부분처럼 꼬불꼬불한 길 끝에 한 채씩 있고 가끔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다. 마을 깊숙한 안쪽에는 논들이 있고 삽교천으로 이어지는 내와 접해있다.

문방리의 다른 마을과 달리 농사를 짓는 농촌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어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음식 촌이다.

4) 마을 변천 과정

문방리는 아산군 이서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문지리(현 문방1구),방축리(문방2구)와 천안군 돈의면 응현리를 병합하여 문지와 방축의 이름을 따서 문방리라 하여 인주면에 편입되었다. 은 고개(문방리3구)는 천안 동의면 응현리가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높아 통행이 불편이 많았다 한다. 또한 이곳은 고종 32년에 아산군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문방리는 장 장군이라는 중국의 유명했던 장군이 신하 한사람을 데리고 문방리에 정착했는데 그 신하의 성씨가 해주 오씨라 전해진다. 그후 아산 장씨도 생겨나 지금은 해주 오씨와 아산 장씨가 마을의 주류를 이룬다.

6) 지 명

은 고개 <응 고개> : 방축 말 동쪽 위 고개에 있는 마을. 본래 천안군 동의면 머리 지역인데, 고종32년에 아산 군에 편입되었음.

밑 마루 : 은 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

방아다리 : 밑 마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방아다리와 같음.

방축머리<학샛골> : 방죽의 머리 쪽에 있는 마을 모양이 학과 같이 되었다함.

불탄 다리 : 방축 머리 위쪽에 있는 마을. 옛날 도적이 물건을 훔쳐 가지고 도망가면서 다리에 불을 놓았다 함.

새밑마루 : 밑마루 옆에 새로 된 마을.

곰내울 : 욧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너더리 : 곰내울 아래에 있는 골짜기.

욧 골 : 은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

용난수 : 밑마루와 새밑마루 새에 있는 못 .옛날에 용이 올라갔다 함.

압해정터 : 방축머리에 있던 정자 터. 통판 성준이 세웠음.

문방저수지 : 방축머리 앞에 있는 저수지.

방 죽 : 은 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방죽. 현재 문방저수지가 되었음.

인주염전 : 새 밑 마루 서북쪽에 있는 염밭. 1949년에 시작하여 1952년에 준공되었는데, 해마다 2,000가마니를 생산하였다 하나 현재는 논으로 농사를 지음.

방축머리다리 : 방축머리에 있는 다리.

은고개 다리 : 은고개에 있는 다리.

감나무 골 : 밀머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감나무가 많았다 함.

홍탁골 : 관청리에 위치함.

당집터 : 밀머리 안산에 있는 산제당의 터.

밀두천 : 밀머리에 있는 내.

홍탁보 : 홍탁골에 있는 보.

밀두교 : 밀머리 사이에 있는 다리.

학샘골 : 앞산의 지형이 학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7) 전설

- 장 장군 묘-

한때는 묘소자리가 당집이었는데 마을에서 일년에 한 번씩 집집마다 쌀을 거두어 시루떡을 해서 제를 올리고 마을이 평안하고 대길하기를 기원하였다. 그후 장 장군 후손들이 조상을 찾다보니 당집자리가 그 묘소라 주장하여 당집은 없어지고 묘소가 되었다.

-불탄 자리-

어느 옛날 도적이 방축리 에서 물건을 훔쳐 나무다리를 건너 응현리쪽으로 도망을 했다. 그런데 마을사람이 뒤 쫓아 오자 나무다리에 불을 놓아 다리를 태웠다. 그 후 그 다리를 포함한 문방 3구 지역을 불탄 자리라 불렀다. 하지만 현 마을사람들은 불탄 자리라는 지명을 좋아 하지않다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새터 말이라 칭하고 있다.

-학샘골-

방축리 (문방2리) 지역이 옛 부터 물이 귀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곳에 샘을 파면 마을 전체가 먹을수 있는 물이 나온다고 말하곤 사라졌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밑져야 본전이라고 그곳에 우물을 팠다. 그때 학 한 마리가 땅속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 갔다. 우물을 백자 정도 더 파자 많은 양의 물이 나와 15년까지 마을 사람들의 공동 우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후 이 마을을 학샘골, 학사골, 학샛골 이라 하였다. 지금도 이 우물이 남아 있으며 우물 옆에 학이 품고 있었던 학 절구가 보존되어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

이 마을에서는 별다른 집단행사가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주민들간의 작은계 와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 잔치를 하여 마을 주민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최초의 발명 및 과학자 장영실 사당이 문방 1리에 있다.

10) 종교단체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인 인주감리 교회가 유 신준 목사 신도 수는 105명 이다.

11) 공장현황

남선콘크리트 - 문방 180-1, 면적 ,76976, 종업원수37 레미콘 제조업
한솔 포렘 - 문방 180-1, 면적 74,644, 종업원수 167, 중밀도 섬유판제조
현대자동차 - 문방 산 73-1, 면적 1,812,000, 종업원수 2,150, 소나타·그랜저
인주식품 (주) - 문방 47 매밀묵과 청포묵
12) 마을의 특성
문방리는 장어 집이 많이 들어서 장어 단지 조성으로 미식가들이 많이 찾는 마을이며 마을 앞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난 해결 등 주민의 편익 시설에 힘쓰고 있다.